

1. 머리말

물품을 사고 팔 때,代金の 決済시기가 즉시에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일정기간 지난 후에 이루어질 때도 있다.

유전스 輸入제도

解説

朴 換 均
(財務部 外換政策課 事務官)

前者의 결제방식을 現札去來라 한다면, 후자는 외상거래이다. 국제간의 수출입거래에 있어서는 前者를 一覽拂(Sight) 거래라고 부르고, 後者를 期限附(Usance) 거래라고 한다.

유전스(Usance)輸入去來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외상수입거래를 말한다. 국제간에 외상거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입자가 수출자와 서로 약속하는 기일에 輸入代金を 틀림없이 지불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장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은행의 지급보증이다. 우리는 이를 輸入信用狀(L/C: Letter of Credit) 이라 부른다.

一覽拂수입거래를 위하여 개설되는 信用狀이 Sight L/C이고 期限附수입거래를 위하여 개설되는 신용장이 Usance L/C가 된다. 輸入신용장방식에 의한 거래는 은행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수출자는 사실상 수입자의 신용은 잘 모르더라도 債權의 회수에는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국제간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수입거래중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가 약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7%는 은행의 보증없이 이루어 지는 거래로 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긴밀한 관계(예: 本支社間 또는 다국적기업간등)를 하고 있을 때 성립되고 있는 결제방식이다. 이러한 無信用狀 결제방식에는 一覽拂 형태인 支給渡(D/P: Documents against Payment)거래와 外上去來 형태인 引受渡(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거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입거래 내용을 결제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一覽拂(Sight) 결제가 50~54%, 유

〈表-1〉 최근의 決濟 時期別 輸入 추이

(百萬弗, %)

	1983		1984		1985	
	수입액	구성비	수입액	구성비	수입액	구성비
일람불(Sight)	11,394.7	51.5	12,027.7	50.3	12,869.1	53.8
●A/t Sight L/C	10,159.7	45.9	11,096.3	46.4	11,638.0	48.6
●D/P	74.3	0.3	71.1	0.3	209.0	0.9
●기타	1,160.6	5.3	860.3	3.6	1,022.1	4.3
기한부(Usance)	10,727.4	48.5	11,874.3	49.7	11,055.3	46.2
●유전스 L/C	10,461.7	47.3	11,465.0	48.0	10,592.1	44.3
●D/A	265.8	1.2	409.3	1.7	463.2	1.9
計	22,122.1	100.0	23,902.0	100.0	23,924.4	100.0

(주) B/L인도기준

〈表-2〉 유전스方式에 의한 原油輸入 추이

	1983	1984	1985
原油全体輸入(A)	6,012	5,579	5,410
期限附原油輸入(B) (Usance)	5,911	5,510	5,355
B/A (%)	98.3	98.8	99.0

(주) B/L인도기준, 原油短期借入에 의한 決濟分 포함.

전스(Usance) 결제가 46~50%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 表 1 참조)

한편, 原油수입의 경우엔 유전스 결제거래가 98~99% 수준으로 아주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이 유전스거래를 하는 이유 내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유전스輸入거래의 발생동기

기업이 유전스수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유중 하나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외상으로 수입→가공·제조→판매→資金化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輸入者(Importer)는 일정기간 지불유예를 받음으로써 당장은 자금부담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럼 이러한 지불유예라는 신용을 供與해 주는 자는 누구일까? 우선 생각하면 물품을 수출하는 자(Exporter)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를 Shipper's Credit이

라고 한다. 그러나 外國의 輸出商도 기업이므로 外上輸出債權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자금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상은 수입자를 支給人으로 하는 輸出換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외국은행에 매각하여 자금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용을 실제로 공여하는 자는 바로 외국은행이 된다.

결국 수입자는 물품의 유전스수입과 관련하여 외국은행으로부터 海外金融을 받아쓰게 된다. 이러한 貿易金融을 Banker's Credit 또는 유전스라고 부른다. 해외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과 비교를 하게 되는가? 바로 해외금융의 조건을 국내금융의 條件과 비교하게 된다. 해외금융은 外貨金融이므로 一般的인 금리조건이외 換率조건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바 그 결과 해외금융 조건이 국내금융의 것보다 유리한 경우에 기업은 유전스수입거래를 選好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의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를 예를 들면서 기업의이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면, 이에 대한 이해는 빠를 것 같다. 지난 84년에서 85년 사이엔 대체로 국내의 金利差는 그리 크지 아니한 반면, 換率 상승 폭이 4~8% 수준으로 해외금융의 조건이 국내금융조건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은 유전스거래를 기피하거나 이용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만 이용하려는 추세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國際金利가 대폭 하락되고 美달러 환율은 오히려 前年度末 수준을 밑도는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해외금융의 조건이 국내금융의 조건보다 유리해지자 기업은 유전스거래를 選好함은 물론 제도적으로 허용되

〈表-3〉 최근의 국내의 金融與件 비교 (%)

	84 말	85 말	86.8 말
해외金利(B/A 90日 기준+0.8%) A	9.55	8.8	6.1
對美換率 상승률(前年末比) B	4.0	7.6	▲1.1
국내金利(貿易金融 기준) C	10.0	10.0	10.0
海外金融조건-國內金融조건(A+B-C)	3.55	6.4	▲5.0

(주) 美 달러貨借 기준, 金融與件에 手数料 등은 불고려

는 最長 기간까지 이용하려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表-3 참조) 이렇게 볼 때, 유전스거래의 성립여부는 해외 금융의 조건이 국내금융의 조건보다 유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물론 국내금융의 조건이 유리하더라도 자금의 이용 폭이 좁으면 기업은 할 수 없이 해외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原油 수입의 경우엔 해외금융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국내금융만으로는 原油輸入金融을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유전스輸入去來 이용에 따른 효과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선 기업측에서는 유전스輸入거래를 통하여 지불유예의 利點, 유리한 금융의 이용 가능 및 국내금융의 隘路 타개 가능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국제수지 사정이 어려운 때에는 外資의 조달이 불가피 한데, 이러한 유전스輸入去來를 활용하면 일정수준의 소요 외자는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유전스수입거래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몇가지 있다. 첫째 유전스輸入金融은 대체로 금융기간이 짧은(보통 6개월이내) 것들이어서 代金償還期日이 단시일내에 到來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元利金을 분할상환하는 차관보다는 상환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자를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外債管理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전스輸入去來와 같은 短期外資조달수단은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外債가 많은 나라들이 유전스수입거래에 對하여 비교적 엄격한 정책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 것이라 하겠다.

두번째, 국제수지가 흑자로 개선되는 시기에 있어서의 외자의 국내 流入은 국내통화의 팽창요인이 되고, 국내통화의 팽창은 인플레이를 유발시켜 경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모든 외자가 원칙적으로 규제되게 마련인 데 아닌 게 아니라, 최근 우리의 경우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이러한 現象들이 나타나기 始作하여 政府는 지난 7.10과 8.21에 유전스輸入기간의 단축과 품목의 축소, 外貨貸出 受惠 범위의 축소 및 商業借款 도입기준의 강화 등 일련의 外資流入 억제조치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4. 유전스 輸入制度의 變遷 추이

유전스수입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등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유전스輸入制度는 국제수지 사정 및 국내 통화의 수준등 시대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가운데서 비교적 자주 바뀌어 오고 있다. 77년부터 86년 금년까지 약 9년동안에 무려 14번이나 제도가 바뀌었음을 보면, 이 제도가 정책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과거와 같이 수입의 제도적인 역제가 요구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外上輸入의 이점을 企業에 주지 아니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유전스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수출용 原資材 내지 국내 필수 원자재등에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外國換去來담보금과 같은 行政担保金을 납부케 하는 등 수입부담을 과중시킨 적도 있었다.

그러나 80년 이후 輸入自由化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병행하여 수입의 제한 수단중 하나로 간주되던 유전스수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는 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外國換去來담보금 積立率이 0%로 낮추어져 마치 폐지된 것과 같은 효과가 되었다. 두번째론 유전스수입 가능 품목을 일일이 심사 지정하는 방식에서 關稅率에 연계하여 一定率 이하인 경우엔 모두 대상품목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하여 유전스수입제도의 운용 방식은 과거의 직접 규제에서 보다 간접적인 규제로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유전스제도가 국제수지내지 通貨 조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제수지 사정이 어려웠던 76

(表 4) 유전스輸入制度의 主要變遷 推移

	'77	78. 4	79. 8	80. 1	82. 2	82. 4	82. 7	83. 5	83. 12	84. 7	86. 7	86. 8
輸入期間	180일→150일 (77. 9) 150일→120일 (77. 11) 120일→90일 (77. 12)	90일 (60일)	120일 (60일)	180일 (90일)	좌 동	좌 동	좌 동 (90일 폐지)	150일	120일	90일 (원유 및 L.P.G. 120일)	60일 (원유 및 L.P.G는 87.1 부 터 90일)	60일 (원유 및 L.P.G 는 87.1 부터 90 일) ※단 표준항 해일수 10일 이하 지역은 30일)
對象品目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품목→				실행관세율 20% 이하 품목 ○수출용원자재	○실행관 세율 40% 이하품목 좌 동	전품목	○실행관 세율30% 이하 품목 ○수출용 원자재	좌 동	좌 동	좌 동	○실행 관세율 20% 이 하 품목 좌동
外担 國 換 保 去 來 金	○수출용 : 10% ○내수용 : 15~30%	좌동	5~20%	3~20%	0%			좌 동				

(주) 外國換管理規定上 延支給輸入制度 基準

년 이전 및 80년대 초반에는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전스수입기간이 最長 기간인 180일까지 허용대고 이 방식에 의한 수입가능 품목수도, 늘어 났었다. 그 반면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시기인 77~78년 및 83년이후 특히 最近에 있어서는短期外債의 작정수준 유지와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유전스輸入期間이 단축되고 수입가능 품목도 축소되었다.

5. 맺는말

우리 경제는 그 동안 놀랄만큼 성장을 해 왔다. 반면에 따른 成長財源은 대부분 외자에 의존해 온 게 사실이다. 이 결과 85년말 현재 약 468億달러의 외채가 쌓이게 되었다. 이중 유전스輸入분이 약 34億달러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유전스輸入분이라 함은 이 방식에 의한 輸入分중 85년말 현재 결제가 되지 아니한 잔액을 의미한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

다. 외상이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더라도 우선 당장은 부담이 없어 좋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海外金融의 조건이 좋지 아니하면 비용이 높은 借入이 되어 기업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음을 감안 할 때 유전스輸入을 방만하게 이용하는 것은 곤란하겠다.

앞으로는 국제수지 여건이 계속 개선되면 될수록 유전스輸入金融과 같은 해외금융의 이용은 제도적으로 더욱 규제될 것이다. 이러한 政策意圖는 좁게 보서는 통화팽창등 副作用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넓게 보서는 국내자본에 의한 안정적인 自力成長의 뒷받침을 해 나가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우에는 3低등 최근의 好與件을 財務構造 개선에 적극적으로 活用하므로써 앞으로의 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